아프면 어쩌나…전남 보건지소 절반 이상 공보의 없다

만성적 공보의 부족 속 올해 배치 57명 줄어…신규 배치해도 49% 불과
출장·순환진료에 지역민들 헛걸음도…지난달 45명 파견했지만 역부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진료도 난항…도, 시니어 의사 활용 국비 지원 등 건의

#. 9일 오전 무안군 망운보건지소에서 만난 최영배(31) 공보의는 "다른 보건지소로 순환 진료갈 때 찾았다가 돌아가시는 지역민 불만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해 4월부터 망운보건지소에서 근무중이다. 월·수·금요일은 망운보건지소에서, 화·목요일은 운남보건지소로 옮겨 의사와 맞교대한다.

최씨는 "보건소에 상주하는 의학과 전공 의료인력이 없고 저도 요일별 '파견 근무'를 하다 보니, 빈 보건소에 헛걸음하는 분이 많다"면서 "한의사만 배치된 경우 처방 가능한 약도 제한이 되는데, 고혈압 환자에 내어줄 약이 없을 때면 안타깝다"고 했다.

최씨는 "진료소 두 곳을 오가며 생활 패턴이 불안정해지는 등 공보의로서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주로 침을 놓거나 한약재를 내어 주는 것이 주 업무인데, 파견 인력은 있으나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서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매년 지역 보건지소에 상주할 공보의가 부족하다보니 '공보의 오는 날짜에 맞춰 아파야겠다'는 푸념이 나온다.

전남도는 매년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부족한 인원을 배치해야할 지 고민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신규 공중보건의사 194명을 포함, 총 477명의 공보의를 보건기관 등 276개 기관에 배치했다.

올해 배치된 공보의는 전년보다 57명 감소했다. 의과와 한의과가 각각 50명, 9명씩 줄었고 치과는 2명 늘었다.

지난해만 해도 216개 보건지소 중 83개소만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올해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감소한 공보의만큼 신규 배치를 하더라도 전체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49%에 불과하다.

결국, 전남 전체 보건지소 중 절반(108곳)도 못 되는 보건지소에만 공보의가 근무를 하는 셈이다. 그나마 처방에 제한을 받는 한의사 공보의를 제외하면 의사가 머무르는 보건지소는 더 부족한 형편이다.

전남도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원을 추가하는 게 아닌 기존 배치 지역에서 인원을 더 빼내 조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 불편과 항의성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마다 분산 배치돼 지역민을 돌보는 공보의의 순회 진료 구역을 기존보다 넓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되면 공보의 담당 구역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진료를 받는 지역민 불만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제건강증진형보건지소에서 3년여 근무 중인 한의사 A씨도 "제도적으로 처방이 불가능한 약제가 있어서 인근 내과나 다른 2차 병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경우 교통 편도 불편해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를 찾아가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 불만이다.

이날 해제면주민다목적센터에서 만난 70대 일행은 "보건소가 있더라도 주변의 2차 의료시설로 안내받다 보니 어느 순간 보건소에는 발길을 끊게 되더라"며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디지털기술 기반 비대면 진료'도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에만 해당되는 만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보의 복무 만료와 파견으로 진료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진료 여부를 체크하고 불가피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기초의원 타깃 나체 합성사진 협박 왜?

신종 피싱? 정치 테러?…협박범 "유포 싫으면 돈 보내"

순천시의원 피해 14명 남성
광주서도 잇단 피해 수사 의뢰

"나는 사립 탐정이다. 귀하의 음란한 영상을 몰래 녹화했다. 영상과 사진을 없애 줄테니 2일 이내로 10만 USDT(암호화폐 '테더'·1억 5000여만원 상당)를 입금하라."

지난 8일 정광현 순천시의원에게 수상한 메일 한 통이 전송됐다.

메일 첨부 파일에는 나체의 남녀의 사진이 담겼는데, 남자의 얼굴 부분에는 정 시의원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정 시의원 뿐 아니었다. 지난 7~8일 사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첨부한 메일을 전송받은 순천시의원은 14명에 달한다.

광주·전남 지역 기초의원들이 합성 사진을 이용한 협박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범죄 조직 등이 시·구 의원들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얼굴 사진을 민망한 사진에 합성하고 '사진·영상을 유포당하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광주서구의원 3명, 남구의원 1명, 북구의원 2명이 같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신종 피싱 사기' 수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특정 정치인들을 노린 '정치 테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 피해를 입은 기초의원들은 모두 남성이라는 점도 의문을 낳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신종 사기 수법까지 횡행하고 있다며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전국 기초의원 30명이 동일범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와 접촉한 심사위원 해촉

전남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심사위원이 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위원이 해촉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릴 예정이던 '2025년 전남도 기능경기대회' 산업용드론제어 종목에서 심사위원과 학교 교사·학생이 접촉하는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대회가 하루 연기된 채 치러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사 결과, 지난 4일 심사위원장 A씨가 모 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제와 관련된 파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인력공단은 기능대회 관리 규칙에 위배됐다고 보고 A씨 등 심사위원 4명을 해촉하고 대회도 하루 연기해 이날 치르도록 했다.

심사위원과 접촉한 학교는 대회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머리 보호하세요"…지진 대피 이렇게

9일 광주시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지진 발생을 대비한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그렇게 경고해도…경찰들 또 음주운전

전남경찰 소속 잇따라 적발…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해 직위해제도

전남경찰청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이 행락철 '음주운전 합동 단속'에 나서고 특별감찰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광주·전남 경찰들의 음주운전 비위 사례가 줄지어 터져나오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8일 새벽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소속 A(32) 순경을 입건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순경은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순경이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A 순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광산경찰서 소속 B(39) 순경이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직위해제됐다.

지난달 17일에는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신안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이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붙잡히기도 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기강을 바로 세운다며 지난달 28일부터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등 특별감찰에 돌입한 상황에도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감찰 활동을 하겠다"며 "특별경보를 발령하거나 강화된 징계 양정을 교육·홍보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해 의무 위반 예방에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